



ONE MONTH festival

Arts Alive

2016.7.1-31
official report

425 PERFORMANCES 28 COUNTRIES

The House Concert

‘더하우스콘서트’는 2002년 7월 12일, 음악가 박창수의 자택에서 첫 공연을 시작했으며 대한민국에 하우스콘서트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귀로만 듣던 음악이 마룻바닥의 진동을 통해 온 몸으로 느껴지는 새로운 경험과 더불어,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는 공간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서로의 시선과 호흡을 생생하게 나눌 수 있는 친밀한 분위기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뿐만 아니라 작은 공간의 가능성을 실험해 온 하우스콘서트는, 클래식을 중심으로 국악, 재즈, 대중음악, 실험예술, 인형극, 독립영화 상영 등 다양한 예술분야를 아우르며 현재까지 2,300여 명의 아티스트와 함께 해왔다.

2012년부터는 ‘하우스’의 개념을 보다 확대시켜 전국 문화예술기관에서 ‘하우스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주자의 전용공간으로 특별하게 여겨졌던 ‘무대’ 위에 관객까지 모두 올라가 연주자와 관객 아우러지는 문예회관 ‘하우스콘서트’ 역시 각 지역의 관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관 콘실 속에 ‘더하우스콘서트’는 2016년 기준 연간 650여 회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또한 연 1회의 대규모 페스티벌,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문화가 있는 날’의 문화예술화관 특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공작극 토요문화학교, 지역 신진예술가 발굴 및 공연기회 등 다양한 지역에서 문화예술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History

- 2002.7.12 음악가 박창수 자택에서 제1회 하우스콘서트 시작
- 2008.10.8 공연장소 이전 및 제201회 하우스콘서트 (녹음 스튜디오 '플레이스 뮤제이션')
- 2009.7.25 공연장소 이전 및 제227회 하우스콘서트 (사전 스튜디오 '보타')
- 2009.12.26 공연장소 이전 및 제240회 하우스콘서트 (녹음 스튜디오 '달하우스')
- 2012.7.9-15 하우스콘서트 10주년 기념 - 2012 프리, 뮤직 페스티벌 개최 (1주일간 전국 21개 지역 100개 공연)
- 2013.-1- 연간 프로젝트 '하우스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작전' 착수 (2013년 총259회 공연)
- 2013.7.12 2013 현대이 페스티벌 개최 (전국 6개 공연)
- 2014.1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문화가 있는날' 문화예술화관 특별지원프로그램(2014) 주관사 선정
- 2014.7.12 2014 현대이 페스티벌 개최 (한중합동 총 94개 공연)
- 2014.8 공작극토요문화학교 '몸으로 느끼는 소리체험' 운영 (과천시민회관 컨소시엄)
- 2014.10.3 2014 줄주조세이 기획 (예술감독: 박창수)
- 2014.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프로그램 '하우스토크' 기획 및 운영 착수
- 2014.12.29 공연장소 이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및 연간 515회 공연 진행
- 2015.3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문화가 있는날' 문화예술화관 특별지원프로그램(2015) 주관사 선정
- 2015.7 2015 원문스 페스티벌 개최 (세계 27개 국가, 432회 공연)
- 2015.1-12 연간 798회 공연 진행
- 2016.7 2016 원문스 페스티벌 개최 (세계 28개 국가, 425개 공연)
- 2016.9.19 제500회 하우스콘서트
- 2016.1-12 연간 650여 회 공연 진행



The House Concert

The House Concert is non-profit cultural organization in Seoul, South Korea and has held small-scale music concerts initiated in the house of Chang Soo Park who is an artistic director of The House Concert as well as a composer/pianist. The House Concert is remarkable for the unusual experience it offers to appreciate music not only by listening but also by feeling the vibration through wooden floors. It reduces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the stage and the audience. Consistently making experiments on small spaces, the House Concert has worked on various genres such as classical music, traditional Korean music, jazz, popular music, experimental art, and independent film with more than 2,300 artists until now.

Applying the main concept to domestic cultural arts venue, the House Concert started its project 'House Concert in Your Town' in 2012. The project's main goals are to increase the utilization rate of local concert halls, to attract a diverse audience, and to offer artists opportunities to perform on stage. It ultimately aims for the cultural development in South Korea through vitalizing cooperation of local concert halls, audience, and artists. This project has been held even in rural areas and is also loved by people for its original concept of audience seating on stage, thus reducing the distance between the artists and the audience. The House Concert also has been hosting an annual festival as well as educational program for children and a discovering talented musician all over the nation. Through these projects, the House Concert has been strengthening the cultural foundation while sowing the seeds of small-scale performances all over the nation.

History	
2002. 7. 12	Held the 1st House Concert in Chang Soo Park's house
2008. 10. 8	Moved to and held the 201st House Concert at the studio Classic Mutation
2009. 7. 25	Moved to and held the 227th House Concert at the studio BODA
2009. 12. 26	Moved to and held the 240th House Concert at the studio yulHAUS
2012. 7. 9 - 15	Celebrat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House Concert ~ Free, Music Festival 2012 (100 concerts held throughout 21 cities for a week)
2013. 1-	Launched the yearly project 'House Concert in Your Town' (259 concerts in 2013)
2013. 7. 12	One Day Festival 2013 (65 concerts held throughout Korea)
2014. 1	Selected as the agency of the project 'Culture Day' hos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cultural arts centers
2014. 7. 12	One Day Festival 2014 (94 concerts held throughout Korea, China and Japan)
2014. 8	Operated the Saturday Art School (Gwacheon Citizen Hall consortium)
2014. 10. 3	Directed the Ulju Odyssey 2014 (Artistic Director : Chang Soo Park)
2014. 11	Launched the program 'House Talk' at the Artist House of Arts Council Korea
2014. 12. 29	Moved to the 'Artist House' of the Arts Council Korea and 515 concerts held a year
2015. 7	One Month Festival 2015 (432 concerts held in 27 countries)
2015. 1-12	798 concerts held a year
2016. 7	One Month Festival 2016 (425 concerts held in 28 countries)
2016. 9. 19	Held the 500th House Concert
2016. 1-12	Approximately 650 concerts held

ONE MONTH festival

Arts Alive

2016. 7. 1 - 31
official report

425 PERFORMANCES 28 COUNTRIES

About One Month Festival

대한민국에 '하우스콘서트' 열풍을 불러 일으키며 기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더하우스콘서트(대표 박창수)' 는 매년 여름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페스티벌은 매회 각기 다른 컨셉트를 가지고 새로운 실험정신을 담아내며 진화해왔으며, 2016년에는 전년도에 이어 '원먼스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2015년에 시작된 '원먼스 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한 달 내내 전 세계에서 공연이 펼쳐지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2016 원먼스 페스티벌'은 한 달 동안 전 세계의 공연이 연합된다는 본래의 취지에 가능한 모든 공연에서 SNS(페이스북)를 이용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라는 성격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공연장에 닿을 수 없는 먼 곳의 관객들에게도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하는 동시에,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더불어 공식 프로그램 이외에도 페스티벌에 추가로 동참할 수 있는 오프 프로그램인 Re:acting Stage를 도입하여, 더 많은 이들이 페스티벌의 뜻에 함께 힘을 실었다.

'2016 원먼스 페스티벌'은 7월 한 달 간(1일~31일) 세계 28개 국가, 142개 도시에서 총 425개의 공연이 펼쳐졌다. 공연은 클래식을 중심으로 재즈, 전통음악, 실험음악 등과 더불어 연극과 무용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를 포괄했으며, 장소에도 역시 제한이 없어 공연장은 물론 하우스콘서트 형식의 살롱 음악회 공간과 학교, 미술관 등 일상의 소소한 공간에서도 공연이 펼쳐졌다.

'일상에 살아 있는 예술'을 한 달 단위로 선보임으로써 문화적 토양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자는 일종의 문화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원먼스 페스티벌'은 세계 각국에서 같은 신념을 가진 수많은 국적의 아티스트와 기획자들이 '더하우스콘서트'의 뜻에 동참하여 완성되었다. 2016년에는 한 달 간 1,322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하고 346,426명의 관객들이 즐겼으며, 개개인의 힘은 작지만 전체가 모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2015년에 이어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ONE MONTH Festival' is a month long project that hosts concerts from all over the world for one full month. The festival, which is being organized every year by 'The House Concert' (Artistic Director Chang Soo Park), a 'house concert' style program that has been devoted to build and expand basic culture in South Korea is constantly evolving by experimenting with different concepts each year.

This year's festival derives from 'ONE MONTH Festival', which was held for the first time last year in 2015, and has included a new concept that would allow almost every concert to be broadcast live using Facebook Live. This was our very attempt to deliver the lively ambience of the stages to even the unreachable audiences that live far away, and also to let people know of our ambition of being one as a whole regardless of physical distance. Also, the festival has included the 'Re:acting Stage', where people can participate in the festival additionally aside from the official program, encouraging more people to be part of the objective of this festival.

This year's 'ONE MONTH Festival' featured a total of 425 concerts in 142 cities in 28 different countries from all over the world for the entire month of July (1st ~ 31st). The concerts, which were mainly classical music, posed other variety of genres including jazz, traditional music, experimental music as well as theatre and dance, and were held in different types of locations including regular stages as well as other alternative spaces in our daily lives such as venues for house concert style salon concerts, schools, museums, etc.

'ONE MONTH Festival', whose purpose is to keep 'Arts alive' and promote a movement to cultivate the cultural soil by presenting arts for the entire month, was made possible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from many artists and promoters from all over the world with the same belief. The festival, which featured 1,322 artists and 346,426 audience for one month, was a moment of proof that a small effort by each individual can be gathered to be a huge force to accomplish something big.

About Artistic Director, Chang Soo Park



64년 서울생. 세계 2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뮤직 퍼포먼스 분야에서 독창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1986년 바랑글 소극장에서 <Chaos>라는 뮤직 퍼포먼스로 정식 데뷔하였으며, 이후 매 작품마다 각각 다른 형식과 양식을 통해 늘 새로움을 추구해오고 있다. 특히 1990년 일본에서 발표했던 작품 <Requiem>은 보는 이의 감성에 직격탄을 날리는 강렬한 에너지로 그를 세계적인 퍼포머로 각인시켰다. 이외의 주요 작품으로는 1982년작 <100시간을 위한 판타지아>, 24시간 12분 동안 연주했던 1998년작 <Ephphatha> 등이 있다.

박창수는 컴퓨터, 인스틸레이션, 영상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한 총체적인 예술작업과 무용음악, 연극음악, 실험영화음악 등의 무대음악 작업을 병행해왔다. 1995년부터 음악감독으로 참여한 '김영희 MUTDANCE'와의 작품은 세계 18개국에서 발표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무성영화에 즉흥연주를 음악을 입히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아트시네마와 주한독일문화원이 공동주최한 <윤아힐러리 스페셜>을 비롯 전주국제영화제, 세네프 영화제 등에서 드레이어와 무르나우, 슈트로하임, 루비치, 엘스탱 등의 무성영화에 즉흥 연주를 통한 독창적인 해석을 선보인 바 있다.

작품을 통해 언제나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는 그의 면모는 음악작업에 머무르지 않고 그 활동의 폭을 넓혀왔다. 그는 국내 공연문화계에 대한 예민한 문제의식과 탁월한 프로그램 기획력을 인정받으며 수준 높고 새로운 공연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2년부터 한국 최초로 자택에서 하우스콘서트를 시작하였으며 14년간 클래식, 대중음악, 국악, 실험음악 등 다양한 음악장르의 공연을 500회 가량 무대에 올렸다. 대한민국에 하우스콘서트 열풍을 불러일으킨 그는 하지만 생생한 소통이 오가는 공연으로 풀뿌리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다. 더불어 매년 여름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기존 공연예술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기초문화 확산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박창수는 그 밖에도 'SNU 실험음악제', '전주국제영화제 - 소니마주', '전주세계소리축제 - 무지카 아타락시아', '보이스 오브 아시아', '2014 울주 오디세이' 등의 음악감독을 역임했다. 하우스콘서트 200회 기념으로 '하우스콘서트, 그 문을 열면 (음악세계)'을 책으로 발간하였으며, 2010년에는 Audioguy 레이블을 통해 그의 실험 정신이 담긴 즉흥 연주 음반인 'Infinite Finitude'를 발매한 바 있다.

Chang Soo Park, born in 1964, Seoul, South Korea, is a composer and pianist who has been internationally active since the 20th Century. Owning a distinctive place in the field of music performance, Park officially debuted in music performance in the Batangol Small Theater in 1986. Since then, with his works that embody different forms and styles, Park has relentlessly pursued freshness into his works. He is renowned for his work <Requiem (1990)>, performed in Japan, which showed forceful dynamism that emotionally moves people and demonstrated his potential as a performer. His major works include <100 Hours of Fantasia (1982)> and <Ephphatha (1998)> which he performed for 24 hours and 12 minu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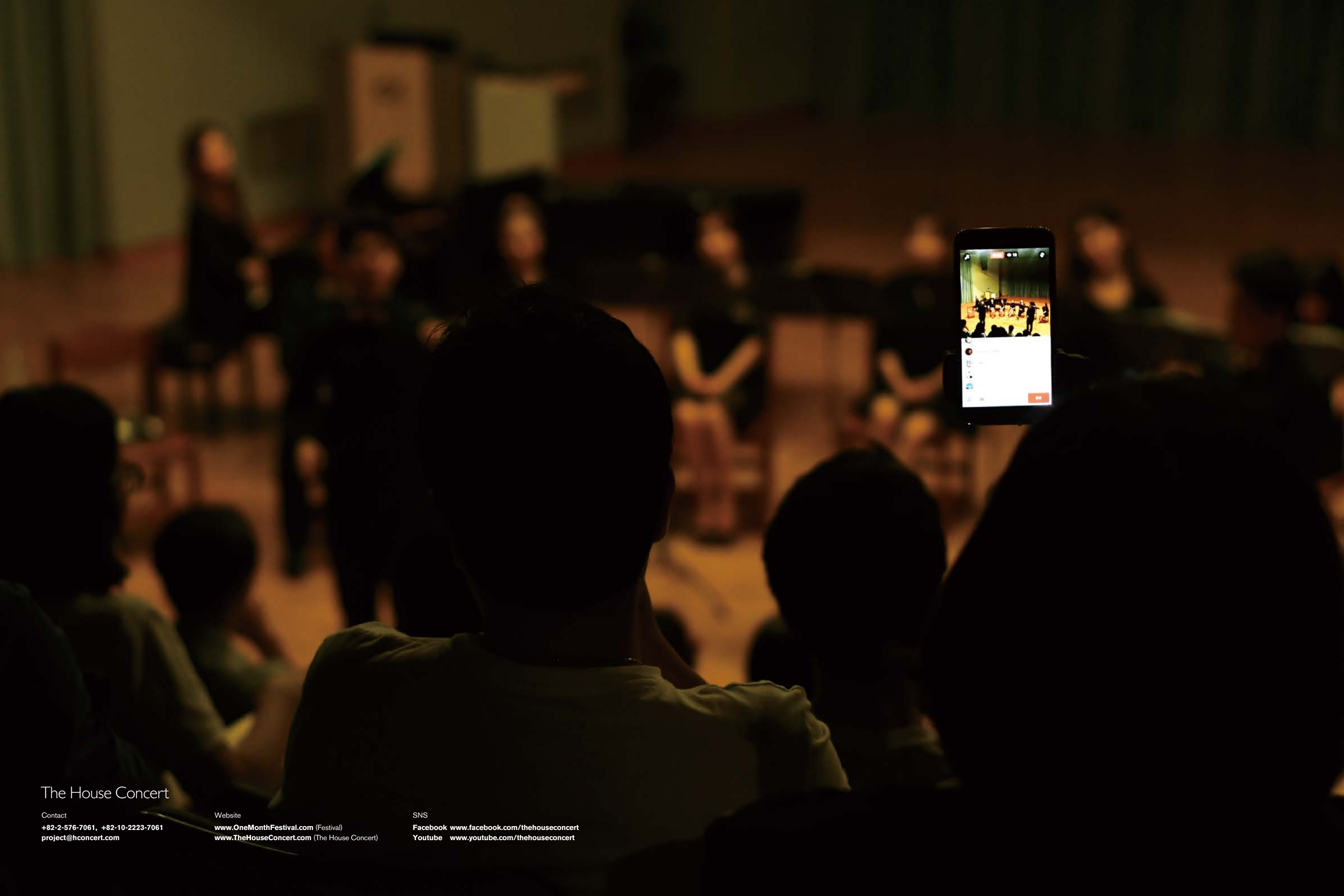
Park has created total art using computers, installations, videos, and performing arts such as dance music, drama music, and experimental movie music. Following the music director Kim Young-Hee's MUTDANCE, Park presented his music pieces in 18 countries worldwide. Since 2003, he has recently focused on adding his improvisational music on silent films.

He demonstrated originality in interpreting silent films with 'Unheimlich Special' which was co-hosted by the Seoul Art Cinema and the Goethe Institute of Korea. He also performed on films of Carl Theodor Dreyer, Friedrich Wilhelm Murnau, Erich von Stroheim, Ernst Lubitsch, and Jean Epstein in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Seoul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is challenges even brought him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Cultural Foundation. Highly recognized as a competitive art director, he enthusiastically participates in developing the performing arts culture. Holding the first House Concert at his house in 2002, Park has ceaselessly held about 500 concerts of diverse genres such as classical music, popular music, traditional Korean music, experimental music, etc, which directly contributed to making a strong cultural foundation throughout South Korea despite its small sizes. Furthermore, Park has created a new paradigm for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by holding the yearly festival and continued to voice importance of the proliferation of foundation of culture with a series of projects.

Filling in the music director position of 'SNU Experimental Music Festival',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Son Imag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 Musica Ataraxia', 'Voice of Asia' and 'Ulju Odyssey 2014', Park has also been responsible as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annual project 'Free, Music Festival' in 2008. He published 'House Concert, When Open Its Door (Eumaksekbye)' celebrating the 200th the House Concert and released his experimental album 'Infinite Finitude' on the Audioguy label.

ONE MONTH festival



The House Concert

Contact
+82-2-576-7061, +82-10-2223-7061
project@hconcert.com

Website
www.OneMonthFestival.com (Festival)
www.TheHouseConcert.com (The House Concert)

SNS
Facebook www.facebook.com/thehouseconcert
Youtube www.youtube.com/thehouseconcert

DEVELOPMENT OF THE HOUSE CONCERT

더하우스콘서트 발전 과정



“개인의 거실에서 시작된 작은 음악회, 공공의 것으로”
Small Living Room Concert Spreading Out to the Public

HISTORY OF FESTIVAL

페스티벌 연혁

2012
프리, 뮤직 페스티벌

기간 2012. 7. 9 ~ 7. 15
장소 전국 21개 도시 소재 23개 공연장
컨셉트 일주일 간 100개 공연

Free, Music Festival 2012
DATE 2012. 7. 9 ~ 7. 15
VENUE 23 arts centers from 21 cities in South Korea
CONCEPT 100 concerts held for a week

2013
원데이 페스티벌

일시 2013. 7. 12. 19:30
장소 전국 65개 공간
컨셉트 같은 날, 같은 시각, 65개 공연 동시진행

ONE DAY Festival 2013
DATE 2013. 7. 12. 19:30
VENUE 65 different venues in South Korea
CONCEPT 65 concerts held simultaneously at the same day and same time

2014
한중일 원데이 페스티벌

일시 2014. 7. 12. 19:00 (한국, 일본) 18:00 (중국)
장소 한국, 중국, 일본의 총 94개 공간
컨셉트 같은 날, 같은 시각, 한중일에서 94개 공연 동시진행

ONE DAY Festival 2014
DATE 2014. 7. 12. 19:00 (Korea, Japan) 18:00 (China)
VENUE 94 different venues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CONCEPT 94 concerts from 3 countries held simultaneously at the same day and same time

2015
원먼스 페스티벌

기간 2015. 7. 1 ~ 7. 31
장소 27개국 총 295개 공간
컨셉트 7월 한 달 간 전세계에서 432개 공연 개최

ONE MONTH Festival 2015
DATE 2015. 7. 1 ~ 7. 31
VENUE 295 different venues in 27 countries from all over the world
CONCEPT 432 concerts held in 27 countries for a month

2016
원먼스 페스티벌

기간 2016. 7. 1 ~ 7. 31
장소 28개국 총 298개 공간
컨셉트 7월 한 달 간 전세계에서 425개 공연 개최 (메인 프로그램, 오프 프로그램인 '리액팅 스테이지' 포함) 개별 공연 페이스북 라이브 송출

ONE MONTH Festival 2016
DATE 2016. 7. 1 ~ 7. 31
VENUE 298 different venues in 28 countries from all over the world
CONCEPT 425 concerts held in 28 countries for a month (including official program and off program, 'Re:acting Stage'). Live video streaming via Facebook Live.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더하우스콘서트’는 페스티벌의 진화와 함께 성장했다.

대한민국에 하우스콘서트 열풍을 불러 일으키며 기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더하우스콘서트(대표 박창수)’는 매년 여름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이 페스티벌은 매해 각기 다른 컨셉트를 가지고 새로운 실험정신을 담아내며 진화해왔다. 그리고 더하우스콘서트는 페스티벌의 진화와 함께 성장했다.

Turning the Impossible Into The Possible
How the Evolution of the Festival Vitalized ‘The House Concert’

The festival, which is being organized every year by ‘The House Concert’ (Artistic Director Chang Soo Park), a ‘house concert’ style program that has been devoted to build and expand basic culture in South Korea, is constantly evolving by experimenting with different concepts each year.

OVERVIEW

주요 컨셉트
Main Concept

LIVE STREAMING

‘2016 원먼스 페스티벌’의 주요한 컨셉트 중 하나는 가능한 모든 공연을 SNS(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 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연장에 닿을 수 없는 먼 곳의 관객들에게도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하는 동시에,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시도되었다. 각국의 많은 공연들이 개별적으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시도하였으며,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 파소까지 포함하여 전체 425개의 공연 중 60%가 방송 되었다. 공연 시 라이브 방송을 시청한 관객(온라인 시청자)은 30만명에 달한다.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oncepts from ‘ONE MONTH Festival 2016’ was having broadcast live almost all the concerts via SNS (Facebook). This was an attempt to bring the lively ambience of the concerts to people who couldn’t attend due to long distances as well as to spread the message that everyone can be together, going beyond physical distance. Many concerts from each country were individually broadcast live using Facebook Live, which was almost 60% of the 425 concerts, even from Burkina Faso in West Africa. The total audience who attended the concerts online reached more than 300,000.

주요 컨셉트
Main Concept

RE:ACTING STAGE (Off Program)

본 페스티벌은 315개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출발했다. 공식 프로그램들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었으며, 이 방송은 더 많은 연주자와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이 자유롭게 페스티벌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오프 프로그램인 ‘리액팅 스테이지’는 공식 프로그램 모진 마감 직후부터 페스티벌이 종료되는 시점까지(7월 31일) 오픈하여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총 102개의 프로그램이 추가로 동참해 페스티벌의 전체 그림을 완성했다. 리액팅 스테이지 역시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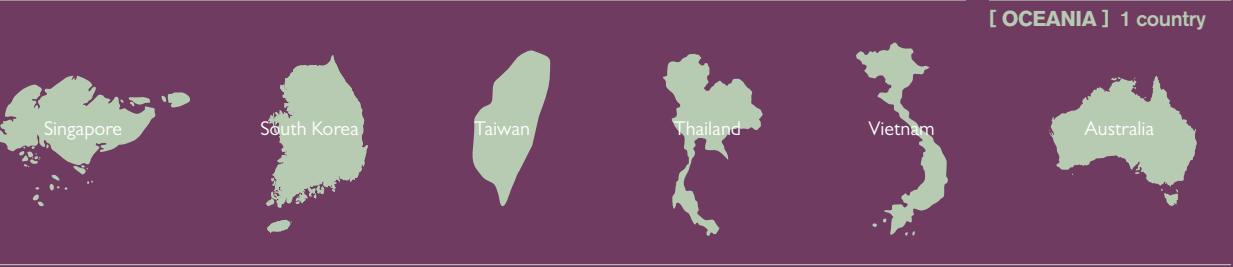
‘2016 원먼스 페스티벌’은 공식 프로그램과 리액팅 스테이지를 포함하여 총 425개의 프로그램으로 막을 내렸다.

The festival began with the official programs of 315 concerts. All the official programs have been broadcast live using Facebook Live, which became the spark in allowing more artists and art enthusiasts to freely participate in the festival; ‘Re:acting Stage’ continuously welcomed additional participants from the moment the official program was finalized, up until the closure of the festival (July 31st), resulting in 102 additional programs that completed the picture. All the ‘Re:acting Stage’ concerts also have been broadcast live. Overall, ‘ONE MONTH Festival 2016’ closed its curtain with a total of 425 programs, including the official programs and the ‘Re:acting S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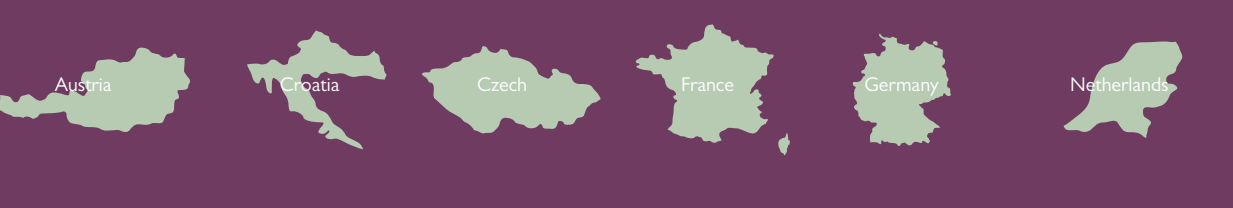


28 COUNTRIES, 6 CONTINENTS

[ASIA] 11 countries



[EUROPE] 10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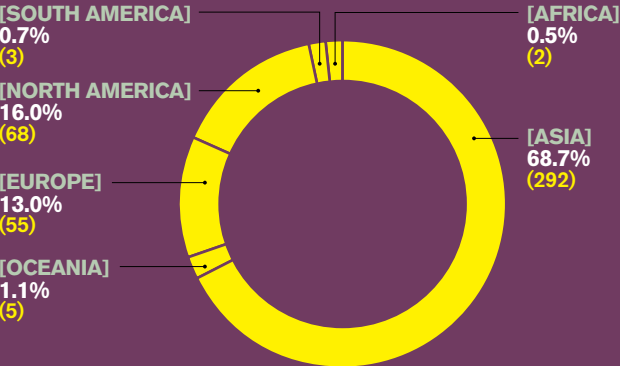
[SOUTH AMERICA] 3 countries



[AFRICA] 1 country



425 CONCERTS at 298 VENUES



* 괄호 안의 숫자는 개회 공연의 수입.
The number of concerts in each continent is shown in each bracket.

1,322 ARTISTS

구분 Classification	단위 : 명 Number
한국 예술가 Korean Artists	827
해외 예술가 Foreign Artists (Non-Korean)	495

346,426 AUDIENCE MEMBERS

구분 Classification	단위 : 명 Number
실 공연 관람객 Total Attendance	43,688
페이스북 라이브 관람객 (생방송 시청자수 집계) Total Viewers using Facebook Live (Live viewers only)	302,738



[연합뉴스]

한달간 26개국서 323개 공연... ‘원먼스 페스티벌’

권수현 기자

세계 26개국에서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 323개 공연을 선보이는 ‘원먼스 페스티벌’(ONE MONTH festival)이 7월 한달간 펼쳐진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박창수 씨가 대표로 있는 ‘더하우스콘서트’가 주최하는 축제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스웨덴, 러시아, 칠레, 부르키나파소 등 26개국의 228개 공연장에서 매일 공연이 이어진다.

박 대표가 2002년부터 자택에서 열기 시작한 ‘하우스 콘서트’처럼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고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축제다. 공연장은 물론 학교, 미술관, 카페, 공원 등 일상의 소소한 공간에서 클래식 음악, 재즈, 국악, 실험음악에서 무용, 연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이 올려진다.

2회째인 올해 축제에는 바이올리니스트인 김남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원장, 피아니스트인 이경숙 연세대 음대 명예교수, 색소포니스트 강태환 같은 거장들을 포함해 각 장르의 국내외 예술가 1천500여명이 참여한다. 피아니스트 김선욱·김태형, 비올리스트 마빈 문·이한나, 첼리스트 이정란, 해금 연주자 강은일, 소리꾼 장사익, 가수 겸 댄서인 팝핀현준과 국악인 박애리 부부 등 각 분야와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동참한다.

외국 공연장에서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계나 500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예술가들이 공연을 맡는다. 오스트리아 빈의 슈베르트 생가에서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건화와 미국 첼리스트 벤저민 라이가 협연하고 주 영국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계 뉴질랜드 피아니스트 제이슨 배가 리사이틀을 연다. 개브리엘 팔라치 트리오 등 몇몇 캐나다 재즈 밴드들은 자국 투어 일정을 이번 페스티벌에 맞춰 진행한다.

공간적 제한을 넘어서고 폭넓은 관객층을 끌어들이려는 다양한 시도도 이어진다. 전국 21개 초중고교를 찾아가는 ‘스쿨 콘서트’가 작년에 이어 다시 열리고 연주자의 집이나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SNS로 생중계하는 ‘페이스북 라이브 콘서트’나 하우스콘서트의 팟캐스트 녹음을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 등도 마련된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페스티벌 홈페이지(www.onemonthfestival.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공연별로 무료부터 2만원까지 다양하다.

(2016년 6월 22일 연합뉴스 기사 전문)

[Yonhap News Agency]

323 Concerts in 26 Countries for One Month...‘ONE MONTH Festival’

By Soo-Hyun Kwon

‘ONE MONTH Festival’, a festival of 323 concerts of diverse genres in 26 different countries from all over the world, will be held throughout the month of July.

The festival, run by pianist and composer Chang Soo Park’s ‘The House Concert’, will feature concerts daily from July 1st to 31st in 228 locations scattered throughout 26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China, Japan,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Spain, Sweden, Russia, Chile, Burkina Faso, and more.

Just like ‘The House Concert’, which began at Park’s residence in 2002, the festival was conceived with the intention of providing cultural arts experiences in daily life while breaking the boundary between the audience and stages. It will host diverse genres of concerts

including classical music, jazz, traditional Korean music, experimental music, performing arts, plays, and more, not only at concert halls, but also schools, museums, cafes, parks, and other venues that are present in everyday life.

The festival, which is having its 2nd year, will feature about 1,500 Korean and international artists of many genres including the maestros, such as violinist and principal of Korea University of Arts’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Nam Yun Kim, pianist and honorary professor at College of Music of Yonsei University Kyung-Sook Lee, saxophonist Tae Hwan Kang. Many leading artists from different genres such as pianist Sunwook Kim, Tae-Hyung Kim, violist Marvin Moon, Hanna Lee, cellist Jung Ran Lee, Haegum player Eunil Kang, singer Sa-ik Jang, singer and dancer Poppin Hyun Joon and Gukak artist Aeri Park couple, and more.

The international stages will consist of about 500 local artists and Korean artists active in those regions. Classical guitarist Gunhwa Lee and American cellist

Benjamin Lai will perform at the Schubert’s birthplace in Vienna, Austria, while Korean New Zealand pianist Jason Bae will hold a recital at the Korean Cultural Centre in the U.K. Canadian jazz bands such as Gabriel Palatchi Trio will be having their national tours at the same time as the festival.

There will also be various attempts in attracting different audience by overcoming the spatial limits. ‘School Concert’, which will visit 21 schools located all over the country, will continue its course from last year, and there will also be ‘Facebook Live Concert’, which will broadcast concerts from artists’ residences or studios live via SNS, as well as ‘Open Studio’, where people will attend the House Concert’s podcast program live.

More details of the festival can be found on the website (www.onemonthfestival.com), and the entrance fee will range from free to 20,000 won.

(Full text of article published in June 22, 2016 edition of the Yonhap News Agency)

[조선일보]

페이스북으로 전파된다, 26개국 음악회

‘2016 원먼스 페스티벌’
전세계 열리는 하우스콘서트...
323개 공연 매일 펼쳐져

김경은 기자

클래식 공연을 꼭 엄숙한 공연장에서 보란 법은 없다. 피아니스트 박창수(62)가 2002년 서울 연희동 집 2층 마룻바닥에서 시작한 작은 음악회인 ‘하우스콘서트’가 그렇다. 낯선 사람끼리 어깨와 무릎을 맞대고 도톰게 앉아 공연을 감상토록 하면서 온몸으로 음악을 즐기는 문화를 퍼뜨리더니 급기야 지난해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등 6대주에서 한 달 내내 공연을 여는 음악 축제를 펼쳤다.

‘2016 원먼스 페스티벌(ONE MONTH festival)’은 올해 다시 전 세계에서 펼쳐는 글로벌 버전 하우스콘서트. 다음 달 1일 아코디언 연주자 알렉산더 셰이킨과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수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을 비롯해 인도, 영국, 독일, 스페인, 스웨덴, 미국, 칠레, 부르키나파소 등 세계 26개국에서 323개 공연이 날마다 펼쳐진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피아니스트 이경숙, 색소폰 연주자 강태환과 더불어 피아니스트 김선옥·김태형, 비올리스트 마빈 문·이한나, 첼리스트 이정란, 해금 연주자 강은임, 소리꾼 장사익, 판편현준과 박애리 부부 등 각 장르 예술가 1500여 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원먼스 페스티벌은 인터넷으로 실시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실제 공연은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을 포함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서울 성수동의 분위기 좋은 카페, 갤러리, 수도원, 공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열린다. 원먼스 페스티벌 홈페이지(www.onemonthfestival.com)에 들어가 ‘페이스북 라이브 보기’를 클릭하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 시각 열리고 있는 공연을 보고 들을 수 있다. 페스티벌 중 일부는 연주자가 자신의 집이나 스튜디오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접속한 온라인 관객만을 대상으로 30분간 짧게 연주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올해의 부제가 ‘일상에 살아있는 예술(Arts Alive)’인 만큼 공간과 장르, 참여자의 경계를 허물고 좀 더 다채로운 성격이 공연 안에 공존하도록 만들려는 취지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본 관객은 프로 연주자가 아니어도 악기 연주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주최 측에 알리면 ‘리액팅 스테이지’를 통해 자신만의 공연을 선보일 수 있다.

(2016년 6월 20일 조선일보 기사 전문)

[Chosun Ilbo]

Disseminating via Facebook, Concerts from 26 Countries

‘2016 ONE MONTH Festival’
House Concerts from all over the world...
323 concerts everyday

By Kyung-Eun Kim

Classical music concerts do not have to be held in solemn places. Just like The House Concert, a small concert in South Korea which pianist Chang Soo Park founded on the second floor of his house in Yeonhui-dong, Seoul in 2002. Last year, what began as a concert where everyone enjoys music through their body by sitting on the floor shoulder to shoulder, knee to knee, has expanded to a month-long music festival where concerts will be held every day in Asia, Africa, Europe, Oceania, North and South America.

Once again this year, The House Concert will present ‘ONE MONTH Festival 2016’, a global version of The House Concert that will take place from all over the world. Starting with accordionist Alexander Sheykin and violinist Hyun-Soo Kim on the 1st of the following month, a total of 323 concerts will be held daily in 26 countries including China, Japan, India, United Kingdom, Germany, Spain, Sweden, United States, Chile, Burkina Faso, etc. Along with violinist Nam Yun Kim, pianist Kyung-Sook Lee, saxophonist Tae Hwan Kang, around 1,500 artists of different genres are voluntarily participating, including pianist Sunwook Kim, Tae Hyung Kim, violist Marvin Moon, Hanna Lee, cellist Jung Ran Lee, Haegum player Eunil Kang, singer Sa-ik Jang, and more.

One unique feature of ‘ONE MONTH Festival 2016’ is the ability to watch the concerts live on the Internet. The actual concerts will be held not only at the Artist House in Daehak-ro, Seoul, but also at various types of venues such as many schools all across the country, a café in Sungsoo-dong known for its relaxed atmosphere, monasteries, parks, etc. But only by simply clicking on ‘Watch Facebook Live’ on the ONE MONTH Festival website (www.onemonthfestival.com), people can watch concerts that are ongoing at the moment wherever and whenever. Some of the festival consist of 30 minute short programs only for online audience on Facebook where artists will perform from closed venues such as their own home or studios.

With its subtitle ‘Arts Alive’, the festival aims at providing concerts where different thoughts coexist by breaking the boundary of space, genre, and audience. It will present ‘Re:acting stage’, where audience who have watched a concert live online can present their own show, whether they are professional artists or not, by notifying the festival’s organizer and recording and broadcasting their performance on Facebook.

(Full text of article published in June 20, 2016 edition of the Chosun Ilbo)





[한겨레신문]

음악을 멈추지 마, 하우스콘서트의 7월

자발적 후원 이어져 재정난 딛고
1일부터 ‘원먼스 페스티벌’ 열어
26개국 300여 공연 폐북 생중계
한국에선 김남윤·이경숙 등 연주

김소민 객원기자

6살 때부터 하우스콘서트(하콘)의 열혈 관객이었던 초등학교 4학년 꼬마는 설날에 받는 세뱃돈 전부를 하우스콘서트를 만드는 데에 써달라며 내놓았다. 10년 전 하콘에서 피아니스트 김선옥의 연주를 접한 뒤 클래식음악 애호가가 된 한 직장인은 월급 일부를 다달이 후원금으로 부쳤다. 전문 번역가인 한 단골 관객은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하콘의 확장판 ‘원먼스 페스티벌’에 쓰일 영문 홍보물 문구를 무료로 번역해줬다. 저명 연주자들도 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가정집 마룻바닥 음악회에서 시작된 전국, 전세계로 ‘작은 음악회’를 전파시킨 풀뿌리 문화운동 하우스콘서트가 심각한 재정난을 토로한 지 넉달째, 자발적인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80여개인 후원자들의 후원금은 6월말 현재까지 약 4100만원이 모였다. 민간 문화재단들은 시즌 티켓을 구매(금호아시아문화재단)하고 5000만원의 후원금(에스비에스문화재단)을 보냈다. 후원금에 정부 지원 문예기금까지 합쳐도 총예산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여전히 재정 부족이 고민이지만 하콘 사무실에는 요즘 긍정적인 기운이 넘친다. 재능과 시간을 기부해 하콘의 업무를 돕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콘서트 현장 진행 등에 나선 개인 후원자들도 많다.

적극적 참여 분위기에 힘입어, 하콘은 7월부터 한 달간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인도, 영국, 독일, 스페인, 스웨덴, 미국, 칠레, 부르키나파소 등 세계 26개 나라 130개 도시에서 ‘2016 원먼스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총 323회의 무대에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피아니스트 이경숙·김태형, 첼리스트 이정란, 색소포니스트 강태환, 해금 연주자 강은일, 소리꾼 장사익, 팝핀현준과 국악인

박애리 부부 등이 클래식, 국악, 재즈, 실험 음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부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한 ‘아츠 얼라이브’(Arts Alive- 일상에 살아 있는 예술)라는 제목으로, 거의 모든 공연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는 대대적인 실험도 실시한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에서나’라는 근본 취지에 맞게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허문 개방형 장외 무대 ‘리액팅 스테이지’도 새롭게 마련한다. 전문 음악가든 아니든 장소, 시간, 장르, 형식 불문하고 누구나 축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콘 강선에 수석 매니저는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문을 열어 놓으려는 것”이라며 “리액팅 스테이지가 페스티벌 전체 그림을 완성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누리집(onemonthfestival.com)을 보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16년 6월 28일 한겨레신문 기사 전문)

[The Hankyoreh]

Don't stop the music, The July of The House Concert

Overcame financial difficulties with voluntary support
Will be opening 'ONE MONTH Festival' starting the 1st
More than 300 concerts from 26 countries being broadcast live on Facebook
Nam Yun Kim, Kyung-Sook Lee, and more will perform in South Korea

By Somin Kim

A fourth grader child, who has been the most passionate attendee of The House Concert since 6 years old, gave up all of her new year's money to support The House Concert. An office worker who has become a classical music enthusiast after watching pianist Sunwook Kim's performance at The House Concert 10 years ago, has been sending parts of his salary every month as support fund. A professional translator who is also a regular, willingly translated all the English promotion materials for The House Concert's 'ONE MONTH Festival' which will be held from all over the world. Many renowned artists also have come forward in participating in creating the fund voluntarily.

Ever since it spoke out about its financial difficulties four months ago, more and more people have been voluntarily reaching out to help The House Concert, a grass roots cultural movement which began from the living room floor of a private home and has been spreading the 'small concert' concept all over the world. Currently in June, around 41,000,000 won has been donated as voluntary support fund by more than 80 individual sponsors. Private culture foundations have bought season tickets (Kumho Asiana Cultural Foundation) and also donated 50,000,000 won (SBS Cultural Foundation). Despite still lacking more than half of its total budget even after adding the donations and government art promotion fund, a lot of positive energy is going around The House Concert's office since then. There have also been many individual sponsors who are contributing their talent and time in helping with The House Concert's office work or promoting via SNS and helping opening concerts.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from everyone, The House Concert will begin 'ONE MONTH Festival', a month-long festival in July, mainly in Korea but will also have concerts in 130 different cities from 26 countries including China, Japan, India, United Kingdom, Germany, Spain, Sweden, United States, Chile, Burkina Faso, and more. A total of 323 concerts will feature artists of a

variety of genres including classical music, traditional Korean music, jazz, experimental music, performing arts, etc, such as violinist Nam Yun Kim, pianist Kyung-Sook Lee, Tae-Hyung Kim, cellist Jung Ran Lee, saxophonist Tae Hwan Kang, Haegum player Eunil Kang, singer Sa-ik Jang, Poppin Hyun Joon and Gukak artist Aeri Park couple, and more.

It is also challenging themselves under the title 'Arts Alive - Arts alive in daily life', where almost every concert will be broadcast live via Facebook. It is acting upon the fundamental object of 'Arts for everyone, everywhere, everyday', to have anyone participate while bridging physical distances.

'Re:acting stage', which will remove any boundary that exists between amateurs and professionals, will also be showcased. It is for everyone to participate in creating this festival whether you are a professional artist or not, despite your location, time, genre, or form. Sun-Ae Kang, senior manager of The House Concert believes it will 'open the gate for everyone who wants to participate in the festival aside from the official program' and hopes 'it will become the missing piece in completing the festival'.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on website (onemonthfestival.com).

(Full text of article published in June 28, 2016 edition of the Hankyoreh)



[동아일보]

“산골학교 작은 클래식...
선율만큼 강한 전율 선물”

26國 130개 도시서 한달간 음악축제...
‘원먼스 페스티벌’ 기획 박창수씨

김유영 기자

정장을 차려입고 가야 할 듯한 클래식 음악회. 편한 옷을 입고 가정집 마룻바닥에 앉아 피아노 연주를 듣는다. 음악 선율뿐 아니라 진동까지 몸으로 느껴진다. 연주자의 거친 숨소리마저 연주와 어우러지며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이런 ‘하우스콘서트’를 15년째 여는 음악인이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을 주축으로 26개국 130개 도시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를 기획했다. 예술가 1500여 명이 클래식, 재즈, 실험 음악 등을 선보이는 ‘2016 원먼스 페스티벌’이다. 무대도 슈베르트 생가, 왕립수도원, 도서관, 식물원, 학교 등으로 넓어졌다. 주인공인 박창수 더하우스콘서트 대표(52)를 최근 서울 동송동 예술가의집에서 만났다.

하우스콘서트를 집 밖으로 끄집어낸 이유를 물었다.

“2002년 서울 연희동 집에서 시작한 하우스콘서트가 10년 됐을 때였죠. 해외에서 공부한 연주자들이 국내에 오면 기량이 떨어지는 경주를 봤어요. 연주 기회가 많지 않다는 데에 답이 있었죠.”

그가 조사한 바는 이렇다. 전국에 500석 이상의 공연장은 약 400곳. 하지만 대부분 연 10회 공연에 그쳤다. 80% 안팎의 예산을 트로트 가수 공연에 투입하고 나머지를 쪼개 클래식 국악 등 ‘기초 문화’ 공연에 쓰는 식이었다.

“하드웨어(공연장)와 소프트웨어(연주자) 모두 풍부한테 기가 막혔죠. 돈 되는 문화에만 매달리는 건 위험해요. 대중문화가 열매라면 기초 문화는 씨앗이에요. 베토벤이나 바흐가 없었다면 대중음악도 지금과 달랐겠죠. 기초 문화가 떠받쳐 주지 않으면 남이 한 걸 따라 하는 수밖에 없어요.”

2013년 7월 12일(하우스콘서트 시작일) 전국 문화예술회관 65곳에서 일제히 음악회(원데이 페스티벌)를 열면서 그의 도전은 시작됐다. ‘관객이 올라’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만석인 공연장이 속출했다. 자신감을 얻어 2014년 한중일 3국에서 ‘원데이 페스티벌’을 열었다. 2015년엔 세계로 개회국을 늘렸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가야금 명인 황병기 등 쟁쟁한 인ulto 무대에 올랐다.

“콘슨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지만 정부와 대기업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연주자는 작은 콘서트 특유의 분위기에

매료돼 흔쾌히 공연을 수락한다. 이름을 얻기 전부터 공연했던 의리로 참여하는 연주자도 적지 않다.

박 대표는 지난해 집을 줄여 마련한 1억 원을 보태 행사를 진행했을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그래도 하우스콘서트 입장료는 2만 원으로 묶어 놓고 있다. 올해엔 예산 부족으로 개·폐막식을 생략했다. 그 대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공연을 페이스북으로 중계해 외연을 넓혔다. 이 모든 과정을 매니저 2명과 준비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축제를 이어 가는 이유를 물었다.

“대중문화만큼 기초 문화의 가치도 인정받았으면 해요. 돈이나 인력이 많지 않아도 잘 늘 수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싶어요.”

보름째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공연계의 독림투시’는 “두고 보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축제 리허설장으로 향했다.

(2016년 7월 20일 동아일보 기사 전문)

[Dong-A Ilbo]

“Small classical music concert at
school in the countryside...
tremble of music as deep as melody”

A month-long music festival in 130 cities of
26 countries... ‘ONE MONTH Festival’ presented by
Chang Soo Park

By Yoo-Young Kim

Unlike typical classical music concerts where one feels obliged to be formally dressed, people sit on the living room floor of a family home with comfortable clothes to listen to a piano performance. You not only sense the music's melody, but also its vibration through your body. In an intimate environment where even artist's sound of breathe harmonically fuses with performance, the boundary between the stage and audiences is broken.

The artist who has been hosting this type of 'house concert' for 15 years is now presenting a music festival that will be held in 130 cities of 26 different countries from the 1st to 31st of this month. It is 'ONE MONTH Festival 2016' accompanied by more than 1,500 artists of different genres including classical music, jazz, and experimental music. The concert venues have been expanded to Schubert's birthplace, royal monasteries, libraries, botanical gardens, schools, and more. We have met with Chang Soo Park (52),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House Concert, at the Artist

House in Dongsung-dong, Seoul.

We asked why he has drawn The House Concert out of his house.

"It had been 10 years since I began The House Concert at my house Yeonhui-dong, Seoul, in 2002. I had seen many occasions where skills of artists who have returned home from studying abroad began to deteriorate. The reason was there weren't any opportunities for them to perform."

According to his research, there are around 400 concert venues of more than 500 seats all across the country. But most of them were only hosting about 10 concerts annually. They were spending 80% of their budget in bringing in trot singers, and the rest in concerts of basic culture needs such as classical music, traditional Korean music, etc.

"It was atrocious considering the abundance of both hardware (concert venues) and software (artists). It is dangerous to only rely on a culture that is financially profitable. If the pop culture were a fruit, basic culture is its seed. Pop music would not have been the same without Beethoven or Bach. If basic culture weren't supporting the base, we will all just be copying what was already done."

On July 12th, 2013, Park's challenge began as he simultaneously hosted concerts in 65 arts centers all across the country ('ONE DAY Festival'). Despite their concern on low attendance level, the tickets for the concerts were sold out one after another. With more confidence, in 2014, Park presented 'ONE DAY Festival', held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n 2015, he expanded the festival to all over the world.

Many renown artists such as violinist Kyung Hwa Chung, Gayageum player Byungki Hwang, participated in the festival. Many ask whether there is a big investor behind all this, but no government or corporate support has been present. Many artists willingly agree to participate solely for the small, cozy ambience of its concerts. There are also ones who first performed when they were little-known, and still continue to participate with loyalty.

The House Concert has been facing some financial difficulties, with even Park himself aiding the organization with his own 100,000,000 won by switching to a smaller home. Despite its hardships, the entrance fee for The House Concert remains to be 20,000 won. Because of the shortage in budget, this year's festival is omitting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Instead, it has extended its concerts with a different method by broadcasting the concerts via Facebook using smartphones. Every one of these details was planned by only two managers. We asked them why they continue working on the festival even with all the difficulties.

"We want basic culture to be recognized as much as pop culture does. We want to prove that we can still have fun and do our job without big money or connections."

The 'independence fighter of the concert fields', who has barely slept for the past two weeks, left for the festival's rehearsal after saying 'Just wait and see'.

(Full text of article published in July 20, 2016 edition of the Dong-A Ilbo)



Concluding the ONE MONTH Festival 2016

2016 원먼스 페스티벌을 마치며



길었던 7월이 지나갔습니다. '더하우스콘서트'는 올해도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더 다양한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술한 어려움을 뚫고, '원먼스 페스티벌'은 이렇게 한 번 더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도(Facebook Live, Re:acting Stage)를 통해 작년 페스티벌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간 세계에서 열리는 공연들(28개국, 425개 공연)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의 실시간 중계는 먼 곳에서 열리는 공연일지라도 관객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거리를 훨씬 좁혀주었으며, 페스티벌에 미처 함께하지 못했던 연주자들이 리액팅 스테이지로 참여하여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한 번 '원먼스 페스티벌'이라는 이름 아래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예술이 계속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객이 연주자가 되기도 하고, 연주자가 다시 관객이 되며 스스로 확산되는 축제의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원먼스 페스티벌의 메시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연주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페스티벌을 만들어준 하코너와 기획자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페스티벌을 함께 즐겨준 관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원먼스 페스티벌'이 모두에게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떠들썩하게 페스티벌의 이름을 걸고 매해 페스티벌의 방식을 업그레이드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모난 돌처럼 여겨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먼스 페스티벌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사소한 개인의 욕심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결국에는 모두에게 좀 더 풍요한 문화 환경을 돌려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반대 의견이 있어도 공연계의 질서를 흔들려 봐야겠습니다.

저에게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는 몇몇 분들은 전처럼 집에서 조용히 소규모 공연이나 만드는 것이 겸손이고 미덕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2002년 하우스콘서트를 시작할 때 저의 초심은 개인의 욕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더하우스콘서트'는 앞으로도 문화적 토양을 다지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명의 음악가로서, 그리고 하나의 문화 환경 속에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먼스 페스티벌'을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더하우스콘서트'와 함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다음 행보를 함께 고민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동참해주시요. 길지 않은 시간 뒤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미래를 신뢰하지 마라.

죽은 과거는 물어버려라.

그리고 살아 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 미국의 시인, 헨리 롱펠로

The long month of July has finally ended. This year, 'The House Concert' took on a new challenge again. With more diverse stages, with more people, and by overcoming numerous difficulties that we should be accustomed to by now, 'ONE MONTH Festival' has come to an end once again.

This year, we were able to show the improved version from last year's festival with our new attempts; Facebook Live and Re:acting Stage. 425 concerts from 28 countries for a month were broadcasted live via Facebook Live. The live broadcast on Facebook Live shortened the psychological gap between the concerts from far away and the audience even more, and musicians who couldn't participate in the festival wer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via Re:acting Stage. With this, under the name of 'ONE MONTH Festival', we witnessed with our own eyes that art was continuing by transcending time and space. It was a place of festivities where it was expanding on its own by audience becoming musicians and musicians becoming audience.

All of this was made possible due to the support and participation from everyone. In this letter, I want to thank all the musicians who sympathized with the intent of 'ONE MONTH Festival' and willingly participated, all the voluntary staff members and promoters who created this festival behind the curtain, and all the audience members who thoroughly enjoyed the festival with us to the fullest extent. I will always remember all of you.

Nonetheless, 'ONE MONTH Festival' wasn't being welcomed by everyone. Perhaps some people found how we beamingly improved the festival year after year under the name of the festival to be quite annoying. But what we wanted to achieve through 'ONE MONTH Festival' wasn't any insignificant personal desire. I truly believe, in the end, that our small movement will return to everyone with a rich cultural environment. And because of this, I will continue to shake up the rules of the performance art world.

Some people told me to "never lose your original intention", as they may have found just quietly hosting small concerts at home to be humble and virtuous. However, my original intention when I began 'The House Concert' in 2002 was actually based on my personal desire. I, along with 'The House Concert', will always continue to cultivate the cultural soil. It is something that I cannot help but be interested in as a musician as well as a person who lives within the cultural environment.

As we conclude this year's 'ONE MONTH Festival', I would like to ask everyone once again to join The House Concert. Please participate in our next movement not by words, but action. I will see you guys with something new very soon.

"Trust no future, however pleasant!

Let the dead past bury its dead!

Act - act in the living Present!"

- American poet, Henry Wadsworth Longfellow

2016. 8. 5.

더하우스콘서트 대표 / 원먼스 페스티벌 예술감독

Artistic Director of The House Concert & One Month Festival

박 창 수
Chang Soo Park



주최
Pres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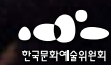
예술감독
Artistic Director

박창수
Chang Soo Park

기획
Manager

강선애, 한진희
Sun Ae Kang, Jin Hee Han

후원
Sponsor



故박범수, 손현서, 연미혜, 이성관, 이은주, 이호영, 조은아, Shuichi Chino, 황인호, 익명 후원

디자인
Design

디자인도두
Design dodoo

번역
Translation

장인준
Chris I. Chang

스태프 (하코너)
Staff

강성민, 강현정, 박성경, 구창완, 김기웅, 김채현, 나민주, 도관홍, 박소영, 박시라, 박예림, 박화영, 손현서, 안수진, 안정은, 양동연, 연미혜, 윤혜린, 이은주, 이현지, 조슬희, 조은진, 최가영, 최정현, 최지영, 한미연, 한은비, 한지우, 허유진

고마운 분들
Thanks To

경기도문화의전당,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주스페인한국문화원, 주영국한국문화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강선애, 강은일, 강창호, 강태환, 박용신, 권소영, 권지민,故권혁주, 그랑기타퀸텟, 김규연, 김광원, 김다혜, 김선욱, 김세운, 김세진, 김세훈, 김소진, 김신중, 김우연, 김이균, 김재준, 김태영, 김현아, 나무행버, 나정혜, 더겐발스, 루비스플카, 모혜영, 몬티첼로, 박경화, 박진영, 박현, 박현아, 박현지, 베리오자 피아노 듀오, 서미현, 서의철, 슬리스츠, 송근영, 송인섭, 송정아, 송효정, 심준호, 심철중, 아르누보 앙상블, 안상수, 앙상블 클라쥬, 양수연, 에스윙, 여기영, 오세빈, 오페라팩토리, 용호성, 원혜경, 위대현, 윤소영, 율하우스, 이경선, 이경숙, 이경실, 이민정, 이서림, 이선호, 이소정, 이승동, 이용로, 이재봉, 이지연, 이지연, 이한나, 이해은, 인도바나나어린이합창단, 임철호, 임현묵, 장영익, 전미은, 전유정, 정은비, 정준석, 정지원, 정지태, 조권, 조세린, 조용, 주현우, 차신혜, 최강희, 최정은, 팔렛 베리우스, 클레칸 보보, 한예린, 허니보이스, 허해룡, 홍경섭
Alexis Vallejos, Andrés Hernández Alba, Eunjoo Lee-Huls, Ehud Ettun, Frederic Chiu, Harumitsu Sogai, Junich Usui, Kazutomo Yamamoto, Michelle Park, Michelle Urquhart, Milind Date, Minyen Hsieh, Nat Stone, Suguru Minamide, Yasuhiro Usui